



# 유사 시의 응급 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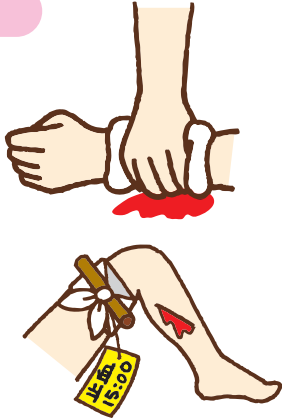
## 응급 처치

## 알아두고 싶은 응급 처치 포인트

재해 발생 시의 혼란 상태에서는 구급차가 바로 오지 못합니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옆사람이 전문적인 치료는 못하더라도, 초기 단계의 응급 처치는 실시해야만 합니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법을 익혀 둡니다.

### 출혈이 심할 때는

깨끗한 거즈나 손수건 등을 상처에 대고 손으로 압박하는 등의 응급 조치를 한 뒤 서둘러 의료기관으로 간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비닐봉지에 손을 넣어 누르는 등 혈액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화상을 입었다면



- ① 서둘러 수돗물 등의 흐르는 물로 식힌다.
- ② 옷을 입은 상태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벗기지 말고 그대로 식힌다.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다.
- ③ 식힌 후에는 깨끗한 거즈 등으로 가볍게 감싸, 서둘러 의료 기관으로 간다.

### 골절이 의심된다면

- ① 환부를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여 조치를 취한다.
- ② 환부에 부목(없으면 판이나 골판지, 우산, 잡지 등으로도 좋음)을 대고 고정시켜, 빨리 의료 기관으로 간다.



### 스타킹을 이용한 응급처치



# 의식이 없을 때는 119!

## 이럴 때에는

- 머리를 다쳤을 때  
환부는 물론 몸도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 타박상을 입었을 때  
환부를 고정하고 얼음찜질 합니다.
- 오한과 떨림을 동반한 고열일 때  
머리를 식히고 몸은 보온합니다.
- 오한과 떨림 없는 고열일 때  
머리, 겨드랑이, 허벅지를 식히고 몸을 지나치게 따뜻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열사병을 일으켰을 때  
그늘로 이동하여 옷을 느슨하게 하고 수분을 공급합니다.

## 구명 강습을 수강하자

구급차가 119 신고를 받고 나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전국 평균으로 약 8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8분 동안이 환자의 생명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인공 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제세동기) 등의 구명 기술을 몸에 익혀둡니다.

구명 강습은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수강하여 응급 처치 방법을 잘 익혀둡니다.

